

선생님 어머니 증거

19950913 수 아침말씀 담고 또 담고 담후2:20-26

(어머니 간증 : 15살 이상 되었을 때, 정월 보름에 쥐불놀이를 한다고 규석이가 교회 안가니까 밥도 먹지 말라고 소리 치더니 교회가서 계속 울면서 어머니에게 회개를 했다. 규석이에게 밥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실 그것은 회개할 것도 없는 것이었다. 그날도 규석이는 밥을 먹었으니까)

용석이와 범석이를 공부 안한다고 팬티만 입혀서 눈속에서 구보를 시켰었다. 그랬더니 겁이 나서 선생님 보다 더 잘 뛰더라. 그렇게 뛰어가서 나무 한짐씩 해가지고 내려왔다. 겨울이라 나무가 없을 때였다. 그렇게 나무를 시키며 공부를 안하면 남의 밭에 가서 이런 힘든 일이나 하게 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 죽인다고 하여 입을 막았다.

(어머니 간증 : 한번은 남비를 샀는데 뚜껑이 없어졌다. 한참을 찾으니 선생님이 그것으로 엿을 사먹었더라. 또 한번은 굴렁쇠 손잡이를 못하게 한다고 작은 형을 때리다가 작은 형을 기절시켰다. 어머니가 쫓아가니 도망을 가다가 묘자리 파놓은 곳에서 쓰러졌는데 죽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흙을 덮으며 파묻으려 하니까 살려 달라고 했다.)

남비 뚜껑으로 엿을 사먹던 생각을 하고 요즘은 애들에게 엿을 사주어도 많이씩 사준다. 꿀도 약을 한다고 높은 곳에 올라다 났는데 그것이 먹고 싶어도 병에 표시를 해놔서 못먹다가 결국을 그래도 기어코 먹었다. 손이 안닿아 베개와 이불을 엮어 놓고서 올라갔다. 때로는 그러다가 팍 넘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는 꿀 먹고 싶은 사람에게 실컨 준다고 제주도에서 6말의 꿀을 사다가 먹고 싶은 사람에게 다 주었다. 그것을 10순갈씩 먹고 속에서 불이 나서 긴 사람도 있었다. 꿀을 많이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다. 기거엔 된장국 먹어야 풀린다.

선생님은 생쌀을 많이 먹었다. 명절 때 먹ند다고 두는 쌀을 바급이가 먹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밤새 쌀을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 벌레가 가득하더라. 어쩐지 쌀 먹을 때 달착지근하더라. 생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죽는다고 못먹게 하나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정정하시다. 선생님은 생식을 좋아했다. 화식을 하니 기운과 힘이 없어지더라. 고기는 한달에 3번만 먹으면 된다. 고기만 먹고 사는 체질이 따로있다. 내년에는 여기다가 배추 농사도 지을 것이다.

선생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준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키며 선생님은 길러 오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이다.

(어머니 간증 : 선생님 오른 뺨에 난 자국은 외가에 가서 인두를 가져다 다림질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대보다가 불에 인두가 닿아서 생긴 것이다. 얼마나 뜨거우면 다림질이 되는가 하고 대어 보았던 것이다)

불을 때다가 어머니에게 아궁이에 손을 넣어 보라고 했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끼라고 그런 것이다. 불이 정말로 뜨거울 때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따갑다. 어른들은 다림질을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가 대보면서 다리기에 선생님도 대 보았던 것이다. 그래도 운전수가 가다가 차가 밀리니까 심심해서 운전대에다가 머리를 넣고 못꺼낸 것 보다는 낫다. 사람이 실수도 금방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자기는 그런 미련한 짓을 앓겠다고 생각해야 한다. 낫질도 순간에 다친다. 순간 실수해서 죽는 사람이 많다. 자기가 운전을 해도 의식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난다. 그 때는 옆에서 깨워 줘야 한다. 실수를 하려면 조금 모자란 생각을 한다. 그러면 큰일이 난다. 일순간이다. 실수해서 죽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1천만명이 넘는다. 1년에 수천만명씩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셨다.

선생님이 전에는 감람산의 일출봉까지 가서 나무를 해왔다. 직경 20Cm되는 나무를 낫으로 쳐서 갖고 왔다. 15-20년 전의 일이다. 이지역에서는 박재봉씨가 제일 기운이 좋았다. 술도 한말씩 마셨다. 몸이 뻘뻘한데 쌀 한가마니를 무릎도 안굽히고 등에 젖고 하수도 만드는 횃통도 하나씩 거뜬히 지고 다녔다.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낫으로 나무를 친 것을 보고는 놀라더라. 선생님도 신기해서 나중에 나무를 뽑아 보았으나 나중에는 안되더라.

선생님 택은 인삼 농사를 횃골에서 350칸씩 지었다. 5년근을 캐면 손바닥 크기 만큼 컸다. 2-3개로 한근이 될 정도였다. 방안에 인삼을 말리면서 식구들이 돌아가며 보초를 섰는데 그 당시는 좋은 인삼은 다 내다팔고 나쁜 것만 집에서 먹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근무 설 때 밤에 4근 정도의 큰 인삼을 삶았다. 양은술으로 하나가 되더라. 찌끼는 갔다가 묻고 물을 마시니 물이 쓰더라. 나중에 어머니가 그 묻은 것을 찾아냈다. 많은 돈이 되는 것이었다. 그냥은 한근도 못삶아 먹는다. 형들은 인삼 농사 지어도 삼 한근을 못먹었다고 하나 선생님은 4-5근을 먹었다. 삶고 나니 물이 시뻘겇더라. 이미 팔려고 준비 다한 것을 삶아 먹었다. 그때 그것이

산삼 먹은 폭이 된다.

더덕도 지름 10Cm되는 것으로 안에 물이 든 것을 먹었다. 하나님이 선생님께 주신 것이다. 감람산에서 켜다. 사람들이 봤어도 보이는 위가 가느니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켜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이 캐니 가면서 넓어지더라. 보리 타작할 때인데 캐다가 더 크면 캐 먹으려고 집 뒤에다 심었는데 그러다가는 썩는다고 어머니가 하시기에 캐서 보니 물이 들어 있었다. 더덕에 물이 든 것은 산삼보다 낫다. 그것을 먹었기에 지금도 겨울이 와도 출지를 앓다. 뿌연 물이 3-4수저 들어 있었다. 어머니에게 드시라고 하니 안먹더라.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면 큰 보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생님이 귀한 것을 먹은 것이다. 사람들이 귀한 것을 선생님께 사다 드리려고 해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 큰 형이 산삼이 있다고 했으나 보니 중국산 산삼으로 먹어도 표가 안나더라. 제일 좋은 것은 밥을 제 때에 먹고 운동하는 것이다. 어제 저녁 같이 늦게 먹으면 안된다. 선생님은 어제 안먹고 그냥 잤다.

. 아버지가 쟁기 부러트리면 선생님은 은근히 좋아했다. 그것을 갖고가면 엿을 많이 주기에. 아버지는 쟁기 부러지면 속상해 일을 안하는데 선생님은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갖고 엿을 사먹었다.

19980703 금 아침 말씀 전-- 죽은 것은 순서가 없다.교역자는 성도를 자기 아들처럼 대해야

R 새벽에 웅달샘 좁은데서 찬물로 씻으면서 아차, 아차가워 하시면서 씻으시던 소리가 방 안에서 들렸다. 삼선교때 용인 아가씨가 나는 죽어도 찬물로 목욕을 못한다고 하니 R 차비 주어서 보내 버렸다.

사돈 둘째 목사 처남 큰집 짓고 살 때 정총재 우리 집에 와서 다락에 들어가면 기도하느라 나오는 것을 못 봤는데 이렇게 잘 돼. 만날 때 같이 신학하자고 했는데 혼자서 한다고 W. 그 사람이 왔는데 아들이 사업하다 말아먹어.

큰 사명 받았다고 얘기하고 가. 사돈인데 큰형 작은형하고 살았다. R 께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소리도 크게 안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고 얘기 함. 그 사람의 친척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어머니 산소를 3년동안 그렇게 다니니 집 사람들 다나와. 부모에게 잘하니 다나오더라. (19980701 수 아침말씀(월명동어머니집짓는곳)

나도 그러하다 요12:44-47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랍니다. 어제도 누가 왔었는데 “이것은 정총재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총재님 손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하기에 “하나님 작품이 여기에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했습니다. 돌조경 꼭대기에 올라가니 백합꽃 향기가 진동한다고 하면서 백합꽃을 찾더라구요. 마치 50송이의 백합이 있는 것같이 풍긴다고 했습니다. 월명동 골짜기에는 백합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바위의 냄새를 맡더라구요.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서 불을 받습니다. 어느 사람은 힘이 확 오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 열린다고 합니다”했습니다. 속으로 ‘네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답답한 장로야. 영인체로 보니까 어린데. 내가 나를 확실히 알 때는 어떻게 될까?’했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확실히 알아도 내 대접을 제대로 못합니다. 섭리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가려냅니다. 그래서 언도를 내립니다. 심판은 안 하지만, 언도는 내리십니다. 아직도 더 혼내야 합니다. 더 혼나고, 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자식을 제대로 못 기른 사람은 나중에 자식 때문에 몸부림치는 고통을 당하더라구요. 자식이 해달라는 사업을 하다가 자식이 망하니까 대전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냥 끝나더라구요. 불붙듯이 잘되었던 약국을 해서 1년 3벌씩 목사님 양복을 해주었는데도, 자식이 사업에 망함으로 다 끝났고, 밥먹기 급급하다고 하더라구요.

부인은 수술해서 심장 기계를 넣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꽃향기 맡아서 기분 좋고 은혜 충만하다고 하더라구요. 제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은혜를 주어도 모릅니다. 내가 신경 쓰면 살립니다. 한 달을 신경 쓰면 나를 깨닫게 해주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에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더덕의 냄새를 맡고서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덕 냄새가 난다고 “야, 더덕이 있다”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덕이 있으면 캐야 할 것이 아닙니까? 팔자 고치는 더덕이 거기에 있는데 그냥 지나갑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말씀 중심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는 멍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보니 백합향기가 슬쩍 풍기더라구요. 나도 맡았다고 하니 이제야 맡았냐고 하더라구요. 나야 이미 이곳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에, 그것을 맡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온 사람에게야 체험으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기서 불 받아서 내려옵니다. 뜨거워서 바위가 녹아 내리는 줄 알고서 뛰어 내려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슴 뜨겁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 한번 기도하러 오겠다고 하더라구요.))선생님 아버지도 문썩때려부수고 했는데 잘해주니 나오더라. 남편이 어디갔다고 하면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집에도 가서 잘하고 하면은 좋다. 진도해야지, 잘못해주면 싫어. 원하는 것 들어주고 하면 다 돌아와. 남자 40대 되면 아내가 어머니,누나,아내 역할 세가지를 해줘야한다. 바람피우면 여자가 잘못된 것이다.

기성인중에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피우다 목사님 들어오는 것보고 포켓에다 넣어서 옷이 타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 계신 것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더라.

19980701 수 아침말씀(월명동어머니집짓는곳) 나도 그러하다 요12:44-47

. (야곱이 외삼촌네 집에 가서 무엇하고 왔느냐고 어머니께서 물으심) 양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나와는 다릅니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시대를 몰고 가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듯이 그런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에게 산에 가면서 “내가 세상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양떼를 몰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세만 따라온 것입니다. 원래는 다 따라왔어야 합니다. 따라온 곳에서 안 따라온 곳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통일교도 나를 따라왔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왔으면 배속 편한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누렸어도 다른 것은 못 누렸습니다. 이번에 일화 제약이 부도났습니다. 돈이 있는데도 부도가 나겠습니까? 매일 한국을 1조를 돕는다고 하지만, 말만 뽐입니다. 그래놓고는 왜 부도를 냅니까? 거기는 미신의 종교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상을 썩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그런 것이 금방 눈에 뜨입니다. 가나안이 기독교입니다. 미신 섬기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미신 섬기는 것이 금방 눈에 뜨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 - 선생님이 떠난다기에 못 가게 내가 붙잡았었는데 “어머니, 내가 외삼촌네 집에 가서 양떼를 몰고 올 것입니다”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양떼를 몰고 오듯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 오듯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선포해서 도둑같이 가듯이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갈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내가 집터끝까지 쫓아 갔더니 “내가 외삼촌네 집에 가서 양떼를 몰고 오겠습니다”했습니다)

부모들은 참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왜 그것을 하는 줄을 모르고, 형님들도 몰랐습니다. 기도를 하면 가르쳐 줄텐데요. 기도를 하면 긍정적으로 됩니다. 월남 갔다 와서 내가 큰형에게 그랬습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모세처럼 온 인류를 끌고 갈 것입니다”했더니 “큰일났다. 너”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큰일났다고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큰형은 성결교단에서 휘어잡고 다닐 때였습니다. 여자 직원들이 죽 사무보고 있었는데 나는 속으로 ‘이것들아. 내가 누군지 모르지?’했습니다. 그 때도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셨는데 몰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르느라고 매일 따라다니셨답니다. 하나님 일을 맡기실 때는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음이 안 놓인다고 하십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느냐면 앞날에 하나님께서 역사 할 것을 알고 자신 있게 내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해놓고서도 겁이 났습니다. ‘왜 내가 그랬나? 그러니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했습니다. 나는 아무 것도 없는데 자꾸 말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도 내가 비행기 먼저 태워준다고 했고, 내가 세단차를 먼저 탄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면 큰형이 먼저 타지요. 목회를 먼저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니 차를 교인들이 안 사주더라구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교인들이 차를 사준다고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타기 싫다고 안 받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차를 타고 올 때에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어머니, 내가 거먹차 타고 온다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했습니다. 나는 뜻이 이뤄지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쨌면 큰형도 차를 탈수가 있는데, 내가 먼저 하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큰형 작은형이 비행기 태울 힘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니 내가 먼저 했습니다. 보통해서는 부모 모시고 외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하셨기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썩 들었습니다. 그 때 못했으면 다시는 갈 여건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 것이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무슨 미련이 있느냐? 미련이 있다면 네가 못한 것이다. 내 것은 다했다”하시기에 나는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다해 주셨습니다”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면 겁나기에 나는 아예 안 합니다.

. 그렇게 미리 미리 동네 사람들에게 큰소리 치게 하셨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크게 될 것입니다”했었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보라고 하더니 정말 보라는 사람이 되었구나”합니다. 내가 통일교 갔을 때도 “너희는 내가 나가면 정말로 외롭고 쓸쓸한 골짜기 되고, 완전히 미신 소굴이 되어 버린다”했는데 정말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가면 은혜의 불이 안 오는 것과 같습니다. 통일교는 은혜의 역사가 끊어졌습니다. 거기서 흐르던 역사의 물줄기를 여기로 다 가져왔습니다. 거기의 물줄기를 가져와서 물을 주니까 금방 광야 땅에도 풀이 질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는 3년 되니까 가뭄이 들어서 다 타버렸습니다. 미국 땅에 가보면 황막한 곳에서도 계속 물을 주니까 풀이 시퍼렇게 자라더라구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물줄기를 주니까 여기만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니 어느 곳만 시퍼래서 ‘어쩌면 저곳만 물을 주나?’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아래만 파이프 장치를 해놔서 거기만 풀이 자랐던 것입니다. 물을 주니까 풀이 나더라구요. ‘아, 이 세상에도 풀이 없었는데 물을 주니까 풀이 올라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모래땅이라고 해도 물을 계속 주면 풀이 올라옵니다. 풀 씨가 날아가니까요. 물을 안주면 안 올라오니 나무 하나 당 파이프를 묻어서 시간마다 물을 주게 해놨더라구요. 우리들도 내가 일일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존재를 못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미국 LA에 가서 느꼈습니다. LA가 원래는 사막 땅이랍니다. 거기같이 비가 자주 오고, 거기 같은 초원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는 완벽한 사막인데 엄청난 물줄기를 대서 그렇게 만든 것이랍니다. 후버댐을 막아서 거기로 대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유독 새파래서 가보니 그 아래에 물주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이 되니 물을 주더라구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일일이 하나님이 역사를 가입하지 않으면 존재를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막 땅에서 사는 식물과 같습니다.

. 옛날에 나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것은 나도 잘 모릅니다. ‘내가 그런 예언을 했었나?’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근방을 돌아다녀 보면 “전에 나를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하더니 이렇게 되었군요”합니다. 박승우 의원 부인이 하는 말이 “전에 밥 먹고는 영웅 밥 먹었으니 보람있다고 하라하셨습시다”했습니다.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에게 얘기해 주더라구요. 영웅이 맞겠습니까? 신앙의 영웅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영웅이고, 모세도 영웅입니다. 선생님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에 “너희들 잘 모른다. 다시 봐라”했습니다. 못 봅니다.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아니면 안될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안되게 생겼기에 선생님이 시동을 걸은 것입니다. 물질로 가는 사람을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어서 시동을 걸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섭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제 누가 그러는데, 자기 조카를 여기에 다니라고 했었는데 세상이 더 좋다고 나가더니 깡패 조직에서 살고 있답니다.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손을 잘라 버리기에 오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오더라도 왜 그를 데리고 가느냐고 우리를 손대기에 나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만 안 했어도 다행인데, 여기서 서운함 타고, 섭섭함 타면 ‘저것들이 생지옥에 한번 가고싶은가?’합니다. 거기에 안간 것만도 감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끝---

19980703 금 아침말씀(월명동어머니집짓는곳) 나도 그러하다 요12:44-47

. (어머니 말씀 - 선생님이 역사를 펴기 시작할 때를 내가 얘기합니다. 깔 짐을 지고 집터굴에 가서 내가 어디까지 말고 집에서 나와 같이 살자고 하면 “어머니, 내가 아주 가는 것이 아니고, 외삼촌네 가서 양떼를 몰고 다시 오겠습니다”하였습니다. 그 양이 무슨 뜻인지는 안 물어 봐서 모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선생님이 한 일은 내가 잇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거죽만 보지 마십시오. 나의 속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와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내가 소리지르니까 무서워서 안 옵니다. 그러나 소리를 만하니까 지르는 것입니다. 성지땅은 여러분의 땅이지, 선생님의 땅만은 아닙니다. 쓰레기도 안 줍고, 음식 찌꺼기에 휴지도 넣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소리지르는 것이지, 내가 왜 남의 자식을 미워하겠습니까? 그 놈의 양떼 소리를 지금껏 못 물어봤습니다. 외삼촌네 집은 어떤 집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려서부터 한 일을 내가 전초 하는 것은 내가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전초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19971024 금 선생님 어머님 생신날에 월명동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

선생님은 십원짜리도 땅바닥에 발로비벼 종이에 싸가지고 다니다 현금하고 주일날은 행사도 안가고 예배드리고 하셨다.